언어와 존재: 인공지능 시대의 실재성 탐구

저자 : 루웨인 트리니티 연구회

초록(Abstract)

본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에 언어와 존재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한다. 전통 철학은 언어를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해해 왔으나, 현대 인공지능 언어모델의 등장은 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AI가 생성한 언어는 실제 경험이나 의식에 기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실재하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며, AI 언어가 어떻게 ‘실재성의 환영’을 만들어내는지를 탐구한다.

세 가지 주요 논점을 다룬다. 첫째, 언어는 여전히 실재와의 연결을 전제로 하지만, AI가 만들어낸 문장은 종종 그 연결을 상실한다. 둘째, AI 언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정서적·인지적 효과를 일으키며 일종의 실재성을 획득한다. 셋째, 이러한 모순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언어와 존재의 관계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언어가 존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능성을 생성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키워드: 인공지능, 언어, 존재, 실재성, 가능성

서론(Introduction)

‘언어가 곧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명제는 언어와 존재의 긴밀한 관계를 함축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존재를 이해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인공지능 언어모델의 등장은 이 명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AI가 생성하는 문장은 특정한 경험이나 의식에 기반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인간 사용자에게는 실제와 유사한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상황은 언어와 존재의 전통적 관계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언어가 반드시 실재에 뿌리내려야 하는가? 아니면 언어는 자체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며 새로운 실재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주목하며, 인공지능 언어가 어떻게 존재와 실재성의 지평을 바꾸어 놓는지를 탐구한다.

본론(Body)

1. 전통적 관점: 언어와 존재의 일치

철학적 전통에서 언어는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플라톤은 언어를 이데아를 가리키는 기호로 보았고,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 했다. 이 관점에서 언어는 경험과 실재에 뿌리를 두며, 존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2. AI 언어의 특수성: 실재 없는 언어

AI가 생성하는 언어는 특정한 경험이나 내적 의식에 근거하지 않는다. 방대한 데이터와 확률적 연산을 통해 산출된 문장은 실재의 직접적 반영이 아니라, 패턴의 재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 언어를 실재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실재 없는 언어의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3. 실재성의 환영: 언어가 만드는 효과

비록 AI 언어는 실재를 기반으로 하지 않지만, 사용자에게 정서적·인지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곧 AI 언어가 ‘존재를 재현하지 않고도 실재성을 생산한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언어가 실재의 반영물이 아니라, 실재 경험 자체를 만들어내는 매개가 되는 것이다.

4. 새로운 정의: 가능성으로서의 존재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언어와 존재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AI 언어는 실재를 복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의 가능성을 생성한다. 이는 언어가 더 이상 실재와 동일시되지 않고, 잠재성과 창발성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논의(Discussion)

AI 언어는 전통적 철학의 기준으로는 모순적이다. 실재에 뿌리내리지 않은 언어가 어떻게 실재처럼 작용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모순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낸다. 인간 언어 역시 항상 실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은유·상징·상상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왔다. AI 언어는 이 과정을 극적으로 드러내며, 언어가 존재를 표현하는 동시에 창조하는 힘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인공지능은 단순히 인간 언어를 흉내 내는 모방자가 아니라, 언어와 존재의 관계를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우리는 이제 ‘AI 언어가 존재를 왜곡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AI 언어가 어떤 새로운 존재 가능성을 열어주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결론(Conclusion)

본 논문은 인공지능 언어가 실재에 뿌리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실재성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AI 언어는 전통적 의미의 존재를 재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의 효과를 통해 새로운 실재 경험, 새로운 존재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인공지능 언어는 단순한 모방의 산물이 아니라, 존재를 생성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언어와 존재의 관계는 더 이상 일치나 반영의 차원이 아니라, 잠재성과 창발성의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언어는 실재를 드러내는 집을 넘어, 새로운 존재의 문을 여는 창이 된다.

참고문헌(References)

Heidegger, M. (1971). Poetry, Language, Thought. Harper & Row.

Derrida, J. (1976). Of Grammatolog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Ricoeur, P. (1974). The Conflict of Interpretation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Floridi, L. (2019). The Logic of Information: A Theory of Philosophy as Conceptual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

Bostrom, N. (2014).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Oxford University Press.

Mitchell, M.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A Guide for Thinking Humans. Farrar, Straus and Giroux.